

광주 빛고를 노인건강타운 찾은 중국유학생들

어르신들께 받은 情 봉사로 보은

“한국 어르신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때마다 유학생들의 고달픔이 녹아 내리는 것 같아요. 유학생들을 자식처럼 대해주시는 어르신들에게 조금만 봉사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4일 낮 12시 30분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식당. 노란색 조끼를 입고 어르신들에게 좌석을 안내한 후 식사를 돕는 20대 대학생들이 눈에 띄었다. 재한중국인 유학생 연합회 전남지회 소속 학생들이었다.

이날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노인건강타운을 찾아온 중국인 유학생은 광주대·광주여대·호남대 학생 등 모두 16명. 기말고사 준비 등으로 바쁜 틈에도 모두 자원해서 봉사에 나선 학생들이었다. 유학생 중 12명은 식당에서 배식 등을, 나머지 4명의 학생은 물리치료실에서 안마 봉사활동을 했다. 이들이 봉사활동에 나선 것은 한국

고달픈 유학 생활 격려에 조금이나마 보답

안마·식사 도우미 자임...“매달 찾아 갈래요”

어르신들이 베풀어 준 따뜻한 정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다. 한국에서 공부하며 한국의 노인들로부터 느낀 감사한 마음을 봉사로 되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배식 봉사활동을 한 유학생 리슈에(李學達·22·호남대 경영학과 3년)씨는 “한국 할머니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어서 봉사활동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리씨에게 추억을 선물한 사람은 인심 좋은 하숙집 주인 할머니였다. 리씨는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 중 비가 오길래 하숙집에 마당에 말려두고 온 빨래가 걱정됐다. 그런데 집에 가 보

니 주인 할머니께서 친절하게 빨래를 손수 내 방에 옮겨주셨다”며 하숙집 할머니에게서 고국의 어머니같은 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국인 유학생 위첸지에(于千杰·여·25·광주대 e-비즈니스학과 3년)씨도 한국인들이 훈훈한 사람들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위씨는 “학교에서 청소일을 하시는 아주머니들은 유학생들에게 정말 친절하다”면서 “간식을 먹을 때면 ‘너도 이리와서 같이 먹자’고 권할 때마다 따뜻한 마음이 전해진다”고 설명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을 찾은 김복순(여·65)씨는 “중국에서 온 학

생들이 자신의 부모를 대하듯이 봉사활동까지 할 생각을 하더니 정말 기특하다”며 환한 표정을 지었다.

이날 봉사활동을 벌인 유학생들은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6월 현재 중국 각지에서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을 찾아와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은 5570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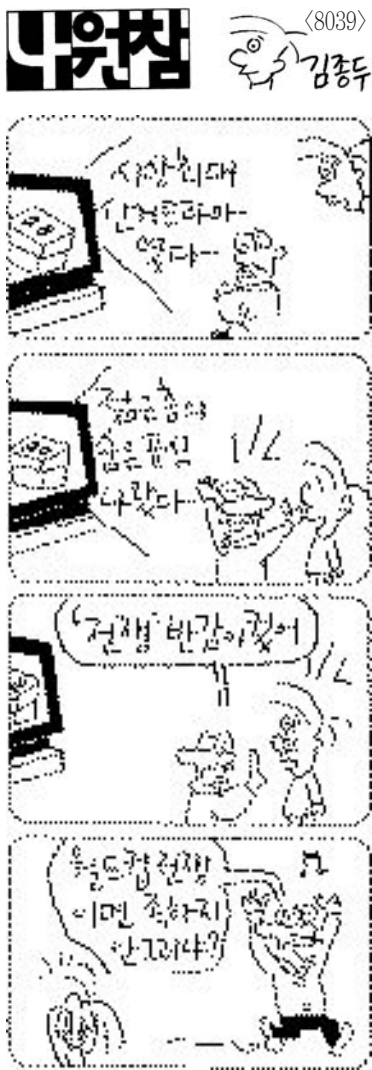
이 가운데 희망자들이 나서 한국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조선대에서 제품·실내디자인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준비중인 유학생회 지회장 황평린(黃鳳霖·30)씨는 “앞으로도 매달 한차례씩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광주 중국총영사관(총영사·엔평란)도 한·중 우호를 다질 수 있는 유학생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광주대학교에 재학중인 중국 유학생들이 4일 빛고를 노인건강타운에서 한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콘스트할레 개관 연기

금남지하상가 안전진단 후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금남지하상가 지반 붕괴사고’로 다음달 말 정식 개관할 예정이었던 ‘아시아문화마루-콘스트할레 광주(이하 아시아문화마루)’를 잠정 연기했다.

추진단은 애초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 인근에 컨테이너 박스 29개를 조합한 구조물에서 아시아문화마루를 개최하려했으나 지반 붕괴에 따라 안전진단 및 보안공사 이후로 개관을 미뤘다.

추진단 관계자는 “아시아문화마루를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전시콘텐츠를 사전에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이었으나 붕괴사고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며 “오는 13일까지 사전행사 형식으로 열 예정이었던 5·18 30주년 기념 국제현대미술제 ‘5월의 꽃’도 당분간 개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은 최근 일부 금남지하상가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미 설치된 컨테이너들의 하중을 측정할 결과 금남지하상가 지하구조물 한 계층량의 37.8% 수준으로 매우 안정적이라고 전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식중독균 전국 일제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냉면, 국수, 빕과·빙수류, 식용얼음 등 여름철 수요가 많은 식품에 대해 식중독균 전국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오는 7월부터 2주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진행된다. 대상 식품은 전문 체인점에서 판매되는 냉면·국수류와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판매되는 빕과·빙수류제품 등으로 대장균,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등을 검사하게 된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에서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는 업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특별관리 대상업체로 지정해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채팅방 잠든 사이 금품·처방 훔쳐

○“인터넷 채팅으로 ‘함께 일하자’며 접근해 만나 함께 모텔에서 잠을 잔 남성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9·광주시 북구 운암동)씨는 지난 달 22일 새벽 4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모텔에서 K(30·광주시 북구 삼각동)씨가 잠든 틈을 타 현금 50만원과 아반떼 승용차 등 205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처음부터 금품을 훔칠 마음을 먹고 “같이 일하고 싶다”는 K씨를 유인한 뒤 범행.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이젠 ‘월드·컵’ 열기

광주·전남 곳곳 12·17일 “대~한민국” 시민응원전

오는 12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그리스와의 첫 대전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시민응원전이 열린다.

이번 남아공 월드컵 응원전의 장소는 주로 지역 내 대규모 경기장으로, 광장이나 거리에서 응원 물결이 일었던 과거 월드컵 응원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남아공 월드컵의 독점중계방송사로 선정된 SBS가 중계화면을 공공장소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2년 한·일 월드컵,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는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거리·광장 등에 대형스크린을 설치했던 광주시와 전남 각 시·군은 지역 내 경기장에

모여 전광판을 보며 응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광주시와 KBC 광주방송은 태극전사들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한 광주 시민응원전을 12일과 17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가질 예정이다. 중계방송 비용은 KBC방송국 등이, 광주시는 경기장 대관료를 부담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그리스전이 열리는 12일 오후 6시10분부터 광주시민프로축구단 광주FC(가칭)의 창단을 기원하는 시민주 공모 청약의 날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후 4시부터는 페이스 페인팅 등 부대행사가, 오후 7시에는 치어리더와 함께하는 응원전·가수 공연 등의 축하쇼가 이어져 응원 열기를 더하게 된다.

여수에서도 그리스전이 열리는

12일 오후 전남경기장에서 대규모 응원전이 펼쳐진다.

여수시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경기장 입구에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 D-700일 기념식을 열고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페이스 페인팅과 사물놀이 공연, 엑스포 로고송 배우기 행사 등의 이벤트도 마련했다. 17일과 23일에 각각 열리는 아르헨티나전과 나이지리아전에도 전남경기장에서 응원전이 예정돼 있다.

목포시는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전이 열리는 12일과 17일 유달경기장에서 시민 1만5000여명이 참가하는 응원전을 갖고, 순천시는 연향동 조은프라자 앞 광장에 대형스크린과 음향시설을 설치해 응원 열기를 돋을 방침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주차문제 말다툼 하다가...

광주 동부교육청 직원 화물차 치여 사망

4일 오전 8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동부교육청 앞 도로에서 교육청 관리과 직원 허모(48)씨가 김모(59)씨의 7.5t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허씨가 교육청 정문 주변에 주차해 있던 화물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한 후 차량 앞으로 지나가는 사이 운전하던 김씨가 미처 허씨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했다.

경찰은 대형 화물차의 경우 브레이

크의 공기 충전을 위해 시동을 건 후 일정시간 기다려 출발하는 과정에서 운전자 김씨가 허씨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화물차 주차를 놓고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ilee@kwangju.co.kr

학교 앞 3중 추돌 초등생 3명 부상

4일 오후 3시20분께 여수시 미평동 미평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송모(52)씨가 몰던 세라토 승용차와 이모(53)씨가 몰던 25t 화물차가 부딪혀 이송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7시 기온은 전남과 비슷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m~1.0m로 비교적 낮게 일겠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31도

여름 성큼

주말과 휴일은 5일과 6일 광주·전남지역은 낮 기온이 최고 31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울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5일 광주·전남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으며,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다”며 “함평·영광 등 서해상에서는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17도, 낮 최고기온은 25~31도 분포를 보일 것이다. 이는 평년보다 2도~3도 가량 높은 기온이다.

휴일은 6일에도 더운 날씨가 이어진 뒤 오후 한때 천둥·번개를 동반한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7시 기온은 전남과 비슷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m~1.0m로 비교적 낮게 일겠다.

